

하이원리조트 '쿨 썸머 뮤지컬 갈라쇼' 론칭

하이원리조트는 여름 공연 '쿨 썸머 뮤지컬 갈라쇼'를 선보인다. 그리스, 광화문연가, 드림걸즈, 팬텀오브오페라, 지킬앤하이드 등 인기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로 구성했다. 스페셜 데이에 최정원, 이진명, 아이비 등 뮤지컬 스타의 공연도 볼 수 있다. 31일부터 8월21일까지 하이원그랜드 3층 카사시네마에서 하루 2회 공연한다.



2021년 8월 2일 월요일 13

신용과 의리의 경영...취임 40주년 맞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100년 기업 앞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일 취임 40주년을 맞았다. 김승연 회장은 “40년간 이룬 한화의 성장과 혁신은 한화가족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100년 기업 한화를 향해 나가자”고 4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한화그룹은 특별한 행사 없이 2일 아침 사내 방송으로 기념식을 대신할 예정이다.

총자산 288배...매출 60배나 증가 통찰력·과감한 M&A로 성장 이끌어 방산·석유화학 선도...재계 7위 도약 항공우주·친환경에너지 육성 나서 “한화의 성장·혁신은 임직원 덕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8월1일로 취임 40주년을 맞았다. 재임 40년 동안 한화그룹의 총자산은 7548억 원에서 217조 원으로 288배, 매출액은 1.1조원에서 65.4조원으로 60배 늘었다. 1981년 9월 취임 직후의 김 회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한화그룹을 재계 7위로 도약시킨 2021년의 김 회장(오른쪽 사진)을 소개한다.

●재임 40년 한화그룹 총자산 288배 늘어

김승연 회장은 1981년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 설립자인 아버지 김중희 회장이 타계하면서 29세의 나이로 그룹 총수가 됐다.

취임 이후 제조·건설, 금융, 기계·항공·방산, 에너지 등 사업을 강화하며 그룹 외연을 넓혔다.

재임 40년간의 성과는 눈부시다. 그룹 총자산은 7548억 원에서 217조 원으로 288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1.1조 원에서 65.4조 원으로 60배 늘었다.

김 회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인수합병(M&A)이 그룹의 성장을 이끌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1982년 당시 적자기업이었던 한양화학과 한국다우 케미칼(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첨단소재 부문)을 인수해 1년만에 흑자 기업으로 돌려놓았다.

IMF 금융위기 직후인 2002년에는

김승연 회장 취임 이후 한화의 발전상			
	1981년	2020년	성장세
총자산	7,548억 원	217조 원	288배 증가
매출액	1조1,000억 원	65조4,400억 원	60배 증가
계열사수	19개	83개	64개 증가
임직원수	11,600명	43,690명	32,090명 증가
해외 거점	7개	469개	67배 증가

적자를 지속하던 대한생명을 인수해 자산 127조 원의 우량 보험사로 키웠고, 2012년 파산했던 독일의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업을 만들었다. 한화큐셀의 2020년 매출은 3조 7000억 원이며, 미국 주거용,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 각각 3년 연속, 2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2015년엔 삼성의 방산 및 석유화학 부문 4개사(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토탈, 한화종합화학 등)를 인수하는 빅딜로 경제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사업 고도화와 시너지 제고를 통해 방산 부문은 명실상부 국내 1위로 도약했고, 석유화학은 매출 20조 원을 초과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화는

재계 7위의 그룹으로 도약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1981년 당시 7개에 불과했던 해외거점은 469개로 증가했고 해외 매출은 2020년 기준 16.7조 원까지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한화그룹을 재계 7위로 도약시킨 김승연 회장 경영 철학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 회장의 경영 철학은 ‘신용과 의리’다. 임직원과 고객은 물론 더 나아가 인류를 아끼고 중시하는 ‘신용과 의리’의 경영 철학이 지난 40년간 한화의 도약을 이끌었다.

IMF 당시 매각 대금을 줄여서라도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최우선했던 일화나 이라크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광역회공수, 플라자호텔 리모델링 시 전 직원 유급휴가 등은 김승연 회장의 ‘신용과 의리’를 대표하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화그룹이 수많은 M&A 속에서도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같은 경영 철학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항공 우주로 100년 기업 한화 이끈다

김승연 회장은 100년 기업 한화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항공 우주,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방산과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이 그것이다.

김 회장은 우주 사업, 미래 모빌리티 등의 신사업들이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과감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세트레이 등이 가세한 스페이스 허브는 미래 우주 산업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분야에서도 미국 오버에어 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린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효율을 높인 수전해 기술 개발, 수소 운반을 위한 탱크 제작 기술 확보, 수소 혼소 기술 확보 등 다가올 수소 사회를 가장 앞서 준비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 '홍삼품은 기력장어'

사진제공 | 롯데

롯데 '홍삼품은 기력장어' 출시 국내산 민물장어 사용...홍삼 등 12가지 한약재 함유

건강식품업체 롯데가 충북인삼농협과 협업해 '홍삼품은 기력장어'를 내놓았다.

국내산 민물장어만을 사용해 18시간 이상 달이는 과정을 거쳤다. 70ml 1포당 장어원물 25%를 넣고 생산하는 등 제품의 품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홍삼을 비롯해 12가지 한약재를 함유했다.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영양성분이 풍부한 장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고혈압과 심근경색,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으로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 또 비타민A, 비타민B, 철, 인, 마그네슘, 칼륨 등을 함유해 면역력을 높여주며,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돕고 혈류 흐름을 개선한다.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DHA와 EPA 성분도 있어 두뇌 건강을 돕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좋다.

롯데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인정받았고,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체내 소화흡수가 가능하다”며 “국내산 민물장어로 만든 건강식품이 최고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마트 '바이오퍼블릭', 17만개 판매 돌파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이오퍼블릭'이 6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17만개 판매고를 올렸다.

첫 제품은 유산균,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베이스 라인 9종으로 구성했다. 섭취용량을 1,2개월 내로 줄이고 가격도 4900~1만9800원으로 설정해 양과 가격 면에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바이오퍼블릭의 매출 견인에 힘입어 7월 1~29일 이마트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여름 시즌을 맞아 신제품 워터젤리(사진)를 선보였다. 타우린을 함유한 에너지젤리 청포도맛, 아연과 철분을 담은 미네랄젤리 포도맛, 6Cal의 저칼로리젤리 복숭아맛 등 3종으로 구성했다. 출시 기념으로 11월까지 2+1 행사를 실시한다.

LG전자, TV 피트니스 서비스 론칭



LG 전자는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OS'를 적용한 LG TV에 'LG 피트니스' 서비스를 론칭했다.

TV 홈 화면의 LG 콘텐츠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올해 신모델을 비롯해 지난해 출시된 LG TV(웹OS 5.0·6.0 탑재 모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스포츠 서비스 전문업체 카카오VX와 협업해 60여 개 피트니스 콘텐츠를 공동 제작했다. 근력운동과 요가, 필라테스 등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초급 수준의 맨몸 운동 영상들이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자체 콘텐츠 뿐 아니라 피트니스 전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또 선호 콘텐츠 및 운동 시간 알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운동 추천, USB 카메라를 TV에 연결하면 영상과 본인의 모습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연내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근 기자

5대 금융지주,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리딩금융은 KB”

KB, 순이익 2조4743억...신한 제2 금융지주 호실적, 증권사 선전 한류 주주환원정책 위한 중간배당 실시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5대 금융지주 2021년 상반기 실적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
KB금융	2조4743억 원	44.6%
신한금융	2조4438억 원	35.4%
하나금융	1조7532억 원	30.2%
우리금융	1조4197억 원	114.9%
NH농협금융	1조2819억 원	40.8%

5대 금융지주사가 2021년 상반기(1~6월)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KB금융이 리딩금융 수성에 성공했다.

상반기 기준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44.6% 증가한 2조474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이어 신한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35.4% 늘어난 2조443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양측의 격차는 305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2분기 기준으로는 신한금융이 KB금융을 제쳤다. 신한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518억 원, KB금융은 1조2043억 원이었다. 리딩금융 자리를 놓고 분기별로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3위는 전년 동기 대비 30.2% 늘어난 1조75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하나금융이 차지했다. 이어 우리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114.9% 늘어난 1조 419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위에, NH농협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한 1조281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5위에 랭크됐다.

5대 금융지주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은 대출 수요 증가로 은행 순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다, 증시 활황

에 따른 증권사의 실적 호조가 한몫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기저효과(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누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전망도 밝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금융지주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배

당도 실시한다. 호실적에도 주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환원책을 강화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KB금융은 지주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시행하며 배당금은 주당 750원이다. 2009년을 제외하고 줄곧 중간배당을 해온 하나금융은 지난해보다 200원 늘어난 주당 7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우리금융 역시 지주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금은 주당 150원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